

# 돈걱정 없는 가정, 그 비결은

조성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I. 서론: 재정문제는 영적 문제

예수님: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에서 우리의 경제생활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명확히 알고 이를 실천할 책임이 있음

돈지갑이 회개하기까지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 (요한 웨슬레)

## II. 부의 본질과 우리의 전통적 재물관

- 1) 부란 무엇인가?
- 2)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재물관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

번영의 신학 (기복신앙)의 문제점

## III.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의 속성: 양면적인 성질

- 1)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부 (신명기 28:1-6)

- ① 솔로몬왕 (왕상 3장)
- ② 아브라함 (창세기 12장과 13장)
- ③ 욥 (욥기 42:12 상)

축복받은 비결: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 2) 영적 위협으로서 부: 부의 우상성

- ① 부자 관원의 이야기 (눅 18:18-25, 마 19:16-30, 막 10:17-31): 우상성
- ②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눅 12:16-21): 부의 영적 위험성 지적

재물의 소유 자체가 제자가 되는 일과 대립적 것이 아님.

- ③ 삭개오의 경우 (눅 19:8-9, 마 27:57)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문제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부의 위험성과 기만성

부가 단순히 위험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우상

(마태복음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의 이 두 측면을 균형있게 이해하여야

(잠언 10:22)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 근심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3) 신실한 자는 항상 물질축복을 받는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여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나를 왜 물질로 축복하지 않으시나?”는 의문

→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 (타락의 위험: 자녀의 예)

→ 재물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임

그렇다고 굶기시지는 않으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

(시 37:25)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에 결식을 볼 수 없었도다.”

결론: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목적)을 하는 과정에서 얻는 부산물

영원한 상급을 주시지 결코 물질만을 주시는 것은 아님

#### IV. 청지기의 사명: 성경적 경제원리의 중심

달란트의 비유 (마 25:14-21)

① (14) 주인: 하나님

② (14,15) 소유를 맡김, (시 8:6)

③ (16-18) 우리의 뜻대로 사용함 : 관리자 (청지기)

④ (19-21) 청지기로서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회계 (결산)

(잠 14:24)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

소유와 청지기의 차이점: 누구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하느냐?

청지기: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위임받은 물건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

#### V. 가정에서 부의 의미

### 1)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

물질을 소비하는 것은 창조질서에 합당: 하나님의 은혜 (창 1:29, 9:3)

재물의 소비: 필요(Needs, 욕구) 욕망(Desires): 소비하는 동기로 구분

- 필요(needs)란 인간이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생존하여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

(딤후 6: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 욕망(desires)은 필요이외의 다른 용도(사치, 과시, 탐욕 등)에 사용하는 것

(요일 2:15~16, 욕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과시적 소비

물질의 일차적인 의미는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needs; 필요) 충족

하나님께서서는 욕구에 지나서 사치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정죄(암6장)

“무조건 짜게 살자”: 또 다른 굴레 (탐미적인 욕구도): 돈에 매이지 않는 균형있는 삶

→ 知足하는 삶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딤후 6:6).

### 2) 하나님사역에 참여: 헌금과 나눔

헌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직접적으로 사용  
십일조(말 3:8-12)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연보(liberty)로 구분

나눔: 어려운 이웃의 구제를 위한 기부를 의미:

성도, 목자, 이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5 Talents)

우리의 여유(4 Talents)를 나 자신을 위하여 다 써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맡기워 주신 것.

### 3) 가정에서 돈의 영적 의미

① 신실함에 대한 증거

②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

③ 온전한 부부를 이룸: 대화의 수단

④ 결혼생활의 위협에 대한 경제적 신호

- 남편과 아내의 재정분리: 각자의 돈을 가지려는 태도

- 가정의 무책임: 남편이 가족의 재정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회피하는 현상

- 종교적 도피: 막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주겠지’종교적 상투어구에 의지
- 충동적 구매: 자신의 기분전환을 위해 무엇인가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망
- 부모님께 의존: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 십일조 기피: 십일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최소한의 표시

## VI. 성경에 입각한 재정 의사결정의 원리

- 무너지는 중산층(특히 중하층)에 대한 위협
  - 종전 : 국민의 70~90%가 중산층이라고 생각 → 사회 안정화에 기여
  - 무너지는 중산층 : 국민의 40%가 부채 > (재산+가처분소득)
  - "20:80"의 사회
1. “부채에서 자유한 삶 (Debt-free Living)”이 가정 경제의 최우선 목표이다.
    - 신용카드: 가장 위험한 가정재정과피범
  2.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한다 : 기록이 필수
    - 수입의 원천과 지출의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규모있는 삶의 전제 조건
  3. 절제된 소비생활을 한다
    - 충동구매, 외상구매 주의
    - 외식비, 경조사비, 과외비, 통신비
  4. 투기를 피한다.
    - 투자는 여유돈으로 : 차입투자는 정신병이다!
    - 위험을 먼저 생각하라: 급한 투자는 위험
    - 분산 투자를 도모하라
    - 당신의 간증을 생각하라.
    - 투자에는 목적이 있어야 : 무조건적 투자는 축재일 뿐
    -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돈을 떼어 놓으라 (마음의 안정: 영적인 투자)
  5. 금융맹에서 벗어나라.
    - 주요 경제교육 사이트

운영기관	사이트 주소	수록 정보
전국은행연합회	<a href="http://www.kfb.or.kr/">http://www.kfb.or.kr/</a>	은행상품, 금리, 금융정보 사이트 소개
금융연구원	<a href="http://kif.re.kr">http://kif.re.kr</a>	주식, 채권, 보험, 투자금융사에 관한 자료
신문사(중앙일보)	<a href="http://teenteen.joins.com">http://teenteen.joins.com</a>	청소년을 위한 경제기사 해설
KDI경제정보센터	<a href="http://ecoedu.kdi.re.kr">http://ecoedu.kdi.re.kr</a>	경제현상 해설과 학습
국세청	<a href="http://nts.go.kr">http://nts.go.kr</a>	세금교실, 숙제도우미
삼성경제연구소	<a href="http://seri.org">http://seri.org</a>	경제문제 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a href="http://fsc.go.kr">http://fsc.go.kr</a>	신용, 은행, 보험, 예금자보호정보
재정경제부	<a href="http://www.mofe.go.kr">http://www.mofe.go.kr</a>	풀어쓴 경제이야기 등 경제교육
통계청	<a href="http://nso.go.kr">http://nso.go.kr</a>	물가, 인구, 경기, 소득, 지출
한국은행	<a href="http://bok.or.kr">http://bok.or.kr</a>	국민소득, 기업경영분석, 이자율
관세청	<a href="http://custome.go.kr">http://custome.go.kr</a>	수출입통계자료

○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전문상담기관

신용불량의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라 : 눈덩이처럼 느는 빚

-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지원위원회 (<http://www.pcrs.or.kr>)
- 시민 단체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http://www.credit815.org>)

6. 자녀들에게 바른 재정습관을 심어 주라 (영적 유산)

- 돈은 공짜가 아니라 노력의 대가로 버는 것: 일정한 일 부과
- 희생하는 것을 가르치라.
- 저축할 때 목적이 있어야: 비필수품(장난감)의 구입

원칙을 고수, 무엇보다도 부모가 모범을 보임으로 삶을 통하여 가르쳐야

## VII. 맺는말

복의 개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부요란 물질적 의미이상으로 사용  
가장 중요한 부요: 우리 마음 속의 평강 (요 14:27)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물질적 처지에 무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  
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2-13)

이것이 진정한 복: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진정한 복이 아님

검소한 삶 (Simple Life): 재물에 대한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돈문제는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짐으로 근본적 해결

검소한 삶에 자족할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집중 (Single-eyed)

→ 이 때 (돈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을 잡기 위하여 일하여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  
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  
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딤후 6:17하-19)

# 성경의 재물관

조성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를 물질만능사회라고 부른다. 사람에 따라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재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중요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하여 부분적이거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 영적이며, 부유한 것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경건을 위해서는 청빈한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sup>1)</sup> 이와 정반대의 견해도 있다.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이며, 그렇기에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sup>2)</sup> 한편에서는 돈은 성경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현금에 대하여만 언급되어 있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말씀은 없기 때문에, 돈은 세상의 방법대로 벌고 이중 일부만 현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sup>3)</sup>

성경은 재물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중요한 문제임을 기술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고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속에서 재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지적하고 있다. 성경에서 돈에 관해 직접 언급한 곳이 700 구절이 넘으며, 여기에는 돈을 현금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재물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면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물관리에서 실패한다면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즉 재물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의 본질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의 속성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부에 대하여 바르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게 하고, 이에 따라 지혜로운 부의 사용에 기여함으로써, 재물에 대한 성공적인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제2장 부(富)의 정의와 청지기 정신

- 1)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공인된 초기의 기독교의 사막의 수도원 창시자들(Desert Father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2) 이러한 견해는 번영의 신학으로 현세적인 복을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번영의 신학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사상이다.
- 3) 이들은 성경에서는 우리 소득의 10분의 1만 가르치고 있으며,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생각한다.

## 2.1 부의 정의

회계에서는 자산을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산이 재산의 정의보다는 넓은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실체에게 미래에 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부가 토지, 보석, 식물, 동물 등의 물건과 노예 등 유형의 재산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현대에는 우리의 능력이나 신용도 부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상법에서는 물적인 출자 대신에 신용 또는 경영 능력을 출자로 인정하여 노무출자를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제는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연봉을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즉 연봉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 수준을 평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성의 일부조차도 부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부가 물질적인 가치만을 측정하던 것에 넘어서서, 인성, 능력 등 모든 속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부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2.2 청지기 사명

청지기(Steward)란 우리말로로는 창고(廳)를 맡은 자를 의미하며, 영어로는 위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청지기 정신은 성경적 경제원리의 중심이다. 청지기 정신은 달란트의 비유(마 25:14~30)를 보면 잘 표현되어 있다.

14절에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다. 첫째, 이 구절을 보면 재물에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는 성경 첫 절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시 24:1)는 말씀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시 8:6). 즉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청지기 또는 관리자(Manager)라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에 언급된 인간창조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연을 돌보며, 이를 생존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하여 주셨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며,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자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것이다 (서철원, 1987). 그렇기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靈長)인 것이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에 보면,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또 두 달란트를 남긴 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이를 보면, 주인이 맡겨 준 재물은 청지기인 우리 임의로 사용 용도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의 사용 용도는 인간의 처분에 달려 있는데,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천박한 일에 낭비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청지기로서 노력의 결과에 대하여 회계(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 새” (마 25:19).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와 두 달란트 받았던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은 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지람과 함께 그 한 달란트도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내어쫓음을 당하였다.

청지기정신(Stewardship)은 현대 경영에서 수탁관리자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수탁자인 경영자는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여 경영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한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럼 이 청지기개념은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의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둘은 우리가 임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사용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재산은 사적으로 소유되며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음 없이 임의로 자신의 효용과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청지기개념에서는 우리들은 재물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축재하거나 탐욕에 따라 낭비하여서는 안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과 청지기의 차이점은 누구의 뜻에 따라 사용하느냐에 있으며, 청지기는 위임받은 물건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고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 제3장 성경의 재물관

성경에서는 부의 속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앞에서 우리는 부가 각 개인에 따라 선하고 창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천박한 일에 낭비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돈이나 물질적인 부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위험성 혹은 재물이 갖는 위상성을 지적하심으로 부의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부의 양면성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돈이나 재산, 부요 등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소유의 청지기직, 재물의 물신적 성격 등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였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조차 맘몬이즘이 나타나고, 이는 샤머니즘적 가치관과의 혼합 또는 공조(共助)하에서 재물을 추구하는 상업주의적 사고가 우리들에게 팽배하게 된 것이다 (이상규, 1991).<sup>4)</sup>

#### 3.1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부

성경, 특히 구약성경에는 물질적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상이 나타나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등 족장들과 솔로몬은 다 부자였다. 부가 하나님의 축복임은 신명기 28장 전반부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신 28:1), 성읍과 들에서,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4) 본 논문에서 전개하고 있는 부의 양면적인 특성은 이상규(1991)의 논리에 근거한 바가 많음을 밝혀 둔다.

우양의 새끼,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신 28:8) 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면 축복 받은 부자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의 축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 욥, 솔로몬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1)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금, 은이 풍부하였더라”(창 13:2)는 표현처럼 당대의 큰 부자였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는 명령을 하시며 축복하셨다. 좀 더 구체적인 물질의 축복은 13장 14~1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축복은 조카 롯과의 재산 다툼에서 아브라함이 깨끗한 마음으로 양보한 직후에 받게 된다.

당시 아브람과 롯은 양과 소가 많아져 서로 다툼이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자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8, 9)며 양보한다. 이에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

이 일이 있던 다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 13:14,15)고 말씀하시며, 재물의 축복을 부여 주신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 또한 본받을 만하다. 아브라함은 그 즉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감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창 13:18). 재물에 대한 아브라함의 욕심 없는 태도는 소돔왕과의 전리품의 가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창 14:23) 끝까지 깨끗하였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근본 이유이다.

### (2) 욥

욥은 본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욥 1:3). 욥은 참으로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시련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을 겸손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에게도 흠은 있었다. 즉 자신의 의를 약간은 과대 평가하는 교만함을 보였던 것이다 (욥 23:11~12).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욥 38:2)고 꾸짖으신다. 이에 여호와의 광대하신 지식 앞에 욥은 지혜롭게 침묵하며 (욥 40:3~5), 그의 크신 능력 앞에 회개하게 된다 (욥 42:1~6). 이 때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욥 42:12 상) 하신 것이다.

### (3) 솔로몬왕

솔로몬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열왕보다 크다고 기술되어 있을 만큼 유사 이래 최고의 부자였다 (왕상 10:23).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

무 같이 많았다 (왕상 10:14~29). 솔로몬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이 왕위로 오른 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서 여호와께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신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왕상 3:5 하). 이때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상 3:9) 라며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왕상 3:13) 주셨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이란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다.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한글 성경에는 주로 명철로 번역되어 있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당대 최고의 제왕학을 배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이다.

부의 축복을 받은 직후 솔로몬의 태도 또한 바람직하다. 그는 꿈을 깨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왕상 3:15).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로는 좋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신의 궁전 치장에 사용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위임받은 수탁자 청지기로서 주인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 임의로 재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4) 축복 받은 비결

아브라함, 욥, 솔로몬이 부의 축복을 받은 비결은 무엇인가?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재물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물질의 부요함만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상반된다. 이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이러한 원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구약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언급되고 있다 (신 28:1~14, 잠 10:22, 전 5:19). 물론 축복은 곧 물질적 부요라는 함수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지만,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에서 만큼 물질적 부가 축복으로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신령한 축복을 더 강조한 점에 차이가 있다 (고후 4:8, 마 6:24). 구약성경에 나타난 모든 물질적 축복은 동시에 영적 축복을 내포한 것이고, 신약시대에 나타날 보다 분명한 축복의 예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물질적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올 수 있음이 강조되어 있다.

### 3.2 영적 위협으로서의 부 : 부의 우상성

신약성경에서는 물질적 부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보다 많이 언급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재산의 소유, 곧 부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부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과 기만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경고하셨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눅 12:16~21)에서, 부자 관원의 만남(눅 18:18~30)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부의 영적 위험성을 지적하셨다.

### (1) 어리석은 부자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부의 영적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기로 결정한다. 또한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눅 12:19)며 기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 12:20)며 책망하신다.

우선 부자의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의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동안 모아 온 많은 재물을 자기 창고에만 쌓아 놓고 혼자만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솔로몬이 말년에 범한 실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전혀 도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19절에서 돈이 많아지면 영혼까지 평안하여 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의 물질만능주의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부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돈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보아 왔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목할 것은 이 부자는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스로 열심히 일하여 많은 수확을 거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눅 12:21)였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목적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인색한 부자를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다. 즉 그가 어리석었던 것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벌어드린 재물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 (2) 부자 관원의 이야기

부자 관원의 이야기(마 19:16~30, 막 10:17~31, 눅 18:18~30)에서는 재물이 갖는 영적 위험성뿐만 아니라 재물의 우상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눅 18:18)라고 질문한다.

그는 관원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학식을 소유하고, 부자였으며,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온 덕망 있는 집안의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다. 그렇기에 이 청년은 ‘너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스스로 확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청년에게서 예수님께서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셨는데,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눅 18:22)라는 충격적인 권

고를 하신다. 이에 그는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가 (눅 18:23),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린다 (막 10:22).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눅 18:24~25)“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신다.

그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부에 대한 신뢰였던 것이다. 그는 부를 너무 의지하여 마음 속에 ‘돈독’이 지독하게 들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큰 부자인고로”,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이러한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 3.3 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위의 말씀들을 보면, 부자들이 부정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면 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관원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부자이면서도 예수의 제자였던 요셉이나(마 27:57), 니고데모, 그리고 삭개오의 경우(마 27:57, 눅 19:8~9)를 보면, 재물의 소유 자체가 제자 되는 일과 양립할 수 없는 대립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마음 속에서 물질적 부요가 가져올 수 있는 영적 위험성 곧 우상, 물신적(物神的) 우상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소유를 포기하라고 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신 적이 없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세리장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천박한 계층이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눅 19:8)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부자였고, 이전에는 천박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전 재산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 19:9)고 선언하셨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부에 대한 그릇된 태도로 인한 영적 생활의 위험성은 서신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10).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에서 바울은 부의 소유와 관련되기 쉬운 여러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딤후 6:17~19).

예수님께서 재물, 곧 물질적 부가 단순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25).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 자체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물신적 성격을 교훈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의 이 두 측면을 균형 있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의 축복을 주시면서 문제점도 동시에 주시는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기술을 자세히 보면, 부의 축복은 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유래되지만, 부의 부작용은 주로 부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부의 우리의 잘못된 사용에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잠언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잠언 10:22)고 언급되어 있듯이, 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돈에서의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 3.4 신실한 자는 항상 물질적 축복을 받는가?

부가 하나님의 축복 중 하나라면, 신실한 사람은 항상 부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여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 부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 바울 등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소위 ‘변영의 신학’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궁핍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을 굶기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구약의 모진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순교의 길은 갔을지언정 굶어 죽은 예를 찾을 수 없다. 3년 반의 가뭄 중에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으며, 사르밧의 과부를 통하여 공급하셨다 (왕상 17:1~16). 그렇기에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에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시 37:25)고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그 복을 현세적인 복, 특히 재물과 출세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련하신 영원한 상급을 주시지, 결코 물질만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 결과로 얻는 대가보다는 그 과정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이 그것이다 (갈 6:22, 23).

## 제4장 맺는말

일반적으로 복 받은 사람이라 함은 많은 재산이 있거나, 좋은 자가용, 호화로운 집 또는 돈을 잘 버는 직업 등 주로 현세적인 윤택함만을 떠올린다. 이것은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이 물질적 풍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부요란 물질적 의미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요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개념이다.

가장 중요한 부요는 우리 마음 속의 평강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고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물질적 처지에 무관하게 평강을 누린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보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2~13).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

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즉 그는 물질적 처지에 무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재물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재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재물은 경제적 효익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편리함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또한 없으면 누릴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재물의 긍정적인 역할과 한계성,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이해하면서 재물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영적인 평강은 없는 것이다. 부자 농부와 같이 돈이 많아지면 영혼까지 평안하여 진다는 착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본 재물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이해하여야 한다. 즉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재물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에 재물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재물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인 것이다.

## 참고문헌

- 대천덕, 성경적 경제의 기초원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1989.
- 서철원, 문화명령,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1987.
- 이상규, "성경에 나타난 부요의 양면성," 통합연구, 1991년 6월, pp.107-135.
- 조성표, "성경에서 바라 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통합연구 (3권 1호), (1990), pp.15-20.
- 조성표, "성경의 경제관," 통합연구 (6권 2호), (1993년 6월), pp.190-213.
- 조성표, "그리스도인 경영자,"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학술발표논문집, (1987), pp.90-97.
- 황호찬, 돈, 그 끝없는 유혹, IVP, 1995.
- Burkett, Larry, The Complete Financial Guide for Young Couples, Victor Books, 1989, (돈 걱정없는 가정, CUP, 1992).
- Burkett, Larry, Your Finances in Changing Times, Moody Press, 1975, (박정윤, 조성표 공역,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 CUP, 1993).
- Goudzwaard, Bob, "Capitalism and Progress," Toronto, Canada, Wedge Publishing Foundation, 1979.
- Griffiths, Brian " The Creation of Wealth," Downers Grove, IVP, 1984.
- Hay, Donald A.,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Apollos, 1989.
- The Oxford Declaration (조상국 역, 크리스찬 신앙과 경제학에 관한 옥스포드선언) CUP, 1991.

## 재물에 대한 욕망, 그 불안 심리

조성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실행위원장)

### 신용의 위기 : 카드 대란

현재 신용불량자 수가 400만명에 육박하여, 경제활동 인구 6명 당 1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절반을 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카드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제 신용카드 부실은 단순히 경제 문제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 카드빚 문제는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얼마전 경북 경주에서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전국을 돌며 여성을 상대로 17차례 강도를 일삼은 혐의로 최모씨가 구속되었다. 검거된 흥모씨는 카드빚 1천 200여만원을 갚기 위해 여성 운전자를 골라 범행하여 왔다. 또한 서울에서는 카드빚 6천만원 때문에 80대 노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으며, 카드빚 갚기 위해 초등생 2명을 유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편, 카드빚 독촉에 시달린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도 꼬리를 물고 있다. 서울에서는 카드빚이 1천 500여만원에 달해 차압이 들어올 것을 괴로워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자살하였고, 30일에는 부산에서 건강식품 판매사업을 하면서 진 거액의 카드빚을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아내의 5천만원 신용카드빚에 쫓겨온 30대 가장이 어린 두 딸을 살해한 뒤 자살을 기도하여 충격을 주었다.

### 차입지출 위주의 성장정책에 따른 과소비

신용카드가 이와 같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정부와 카드사에게도 원인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무절제한 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자신의 수입을 넘어서는 과잉 소비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 속담처럼 “외상으로 소를 잡아먹는” 꼴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급속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절약과 검소한 삶의 소비양식이 90년대부터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경제 성장과정에서 태생된 졸부들은 과소비로 자신들의 상승된 신분을 과시하였다. 소득이 못 미치는 일반 사람들도 모방소비로 따라가려 하였다. 명품에 대한 모조품이 성행하는 것은 이러한 소비 풍조에서 기인한다. 97년말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소비가 잠시 주춤하더니,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를 억제한 반작용으로 보상 소비욕구가 급속히 일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며 소비를 부추겼다. 99년 봄, 외환위기 이후 반짝 회복됐던 국내경기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당시 미국의 경기도 부진하자 정부는 "내수를 살려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현금서비스 한도액(70만원)을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는 세금을 깎아 주었으며, 심지어는 카드영수증 복권제까지 도입하였다. 이에 맞추어 카드사들은 길거리 회원 모집,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 장기 무이자 할부, 연회비 면제 등을 통하여 제 살 깎아 먹

는 매출경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국내의 신용카드 매출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200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480조원을 넘어 섰다. 99년 90조원에서 2000년 200조원을 돌파하더니, 2001년 또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선진국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80%가 물품구매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현금서비스, 카드론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대출카드로 변질된 것이다.

2003년 3월에 물품구입대금에 대한 연체율이 7.8%이었는데, 이는 2002년 6월 3.1%, 12월 4.2%의 연체율보다 높아진 것이지만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연체율은 2002년 6월 4.2%, 12월 7.9%에서 2003년 3월 14.3%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용도가 낮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대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급된 카드가 돈을 빌려쓰는 도구로 전락되어 젊은 계층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현재 350만 신용불량자 중 20대가 20%, 30대가 30%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의 신용카드 대란은 정부의 차입지출 위주의 성장전략에 돌아난 과소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불안 심리, 그 근저의 요인**

현재 우리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벼락부자에 대한 열망, 부자들은 모방하는 과소비, 이들의 근저에는 현재의 향락주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지난 97년 경제 위기를 겪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경제위기의 여러 원인들이 거론되지만, 이들의 근저에는 우리 국민의 배금사상과 과소비가 자리하고 있었다.

기업들이 외채를 차입하여 방만한 경영으로 허세를 부렸고, 국민들도 돈을 꾸어 과소비에 열중하였다. 국가적으로 수출이 되지 않아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수입 등 소비만 증가하여 외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외환위기를 맞았던 것이다. 외채 규모를 보면, 93년 439억 불이던 것이 95년 784억불로 두 배 증가하였고, 98년 1,600억불로 또 다시 두 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IMF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때 깨달은 것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7)”는 말씀이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직과 가게 파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실감하였다. 또한 평생 직장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가정들을 휩쓸었고, 이에 따라 재물을 움켜지려는 물질 욕구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 이러한 위기의 와중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나타났다. 벤처투자 열풍이 이를 자극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회가 온통 한탕으로 한 목을 잡는 분위기로 변질된 것이다.

우리는 경제위기를 통하여 그 근저 원인이 우리 속에 있는 만몬(mammon)의 우상인 배금주의와 향락주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었다. 그러나 위기를 지나오면서 이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보다는, 또 다시 돈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 **자본주의와 신용사회**

신용사회, 돈이 없어도 자신의 신용만으로 자원을 조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회는 우리 인류 사회의 오랜 꿈이었다. 그러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신용으로 인한 소비는 우리 가정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신용제도가 발달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더욱 심하다.

미국에서는 집 값의 10%만 내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나머지 돈은 월급을 받아 20년 동안 할부로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중간에 직장에서 실직하면, 할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 실직이 3개월 이상 계속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빈번하다. 그렇기에 미국 가정들은 “돌아가는 바퀴에 서있는 꼴”이라고 비유되고 있다. 돌아가는 바퀴에서 계속 뛰어야만 버틸 수 있으며, 잠시 멈추었다간 추락하는 위태로운 가정을 빗댄 말이다.

현대 사회에 올수록 각 가정의 재정적인 불안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며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향후 전 세계는 20대 80의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현재의 소득분포는 중산층이 두꺼운 항아리형인 반면, 미래에는 상위 고소득층이 20%이고 하위 극빈층이 80%인 비대칭 모래시계형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중산층들은 가정의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금융맹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이러한 신용대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우선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빚은 방치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따라서 부실 초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용불량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http://www.pcrs.or.k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 단체로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http://www.credit815.org>)가 있다. 초기에 이러한 단체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들이 신용불량의 책임을 너무 쉽게 면제시키도록 되어 있어 “배 짜라”식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려면 6년에서 10년의 회복기간이 소요된다. 다만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이들에게도 대출 등 갱생에 필요한 별도의 금융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리나 대출한도를 차별화하여야 한다. 결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안 갚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보는 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이제는 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 우리는 돈과 성(性)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돈과 성은 좋은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꺼리다 보니 잘못된 또는 부분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돈의 무절제한 사용과 이성 간의 굴절된 사랑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심각한 카드 부실도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비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한 데에 원인이 있다. 이제 국민들에게 소비, 투자하는 법에 관하여 교육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도 경제교육이 있어 왔다. 그런데 종전의 경제교육은 국민소득, 가격곡선 등 경제학 교과서적인 내용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경제상식은 넓힐지 몰라도 실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제 경제교육을 금융교육, 회계교육, 소비교육, 자산관리교육, 투자교육으로 확장하여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교육, 금융·자산관리교육, 투자교육은 선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49년도에 민간기구인 경제교육협회를 설립하여, 투자자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경제교육을 해오고 있다. 영국은 정부 조직인 금융서비스원 소비자교육국에서 돈의 이용방법, 위험과 보상의 상호관계 등 투자원리를 교육하고 있으며, 일본도 3-4년전부터 증권업협회 등에서 투자 및 소비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돈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어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노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금융맹을 퇴치하여야 한다. 돈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금융맹은 문맹보다 더 위험하다. 문맹은 본인이 모르는 것을 알지만, 금융맹은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성경에서 부요의 의미

"부유자 되세요"

한동안 우리 사회에 유행하던 덕담이었다. 한 회사의 광고 문구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갔던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자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한 마디였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재산이 많고 호화 저택에 살며, 고급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의 복의 개념이다. "복"하면 물질적인 복의 개념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다.

성경에서 "부요함"이란 돈 이상의 것을 지칭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약 2:5)”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부유함만을 추구하다 많은 문제에 봉착한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물질에 대하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경은 “지족(知足)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라고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물질에 집착하면 경건함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딤후 6:6-10).

가정에서 돈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다. 돈의 의미, 그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돈이 있으면 우리는 편리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잠시 편안할 뿐이다. 돈에는 평강이 없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눅 12:19)”며 돈이 많으면 영혼까지도 평안하여 지는 줄 착각하고 있다. 영원하고 근본적인 평강은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요함이다 (요 14:27).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물질적 처지에 무관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 4:12)” 이 때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는 능력 있는 삶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진정한 복이 아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는 검소한 삶이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즉 재물은 우리를 끊임없이 번거롭게 하고 염려하게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하여는 단순한 삶(Simple Life)을 사는 것이 최상이다. 재물에 대한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로와 지는 것이 바로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눅 8:14)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검소(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집중(Single-eyed)하기 위함이다. 이 때 비로소 (돈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마 6:33).

# 성경적인 증권투자 가능한가?

조성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1. 저축과 투자는 믿음이 부족한 행위인가?

일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저축을 하거나 특히 투자를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행위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터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한 행동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건전한 투자의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 (마 25:14-30)에서나 요셉이 흉년을 대비한 것은 이의 좋은 예이다. 잠언에서는 개미와 같이 풍성한 시기에 그렇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렁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6:6-8).” 특히 집에 약간의 여유분을 예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지혜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잠언 21:20)”

물론 지나친 축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뢰)을 재물로 옮기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이나 미래의 소득의 감소, 우발적인 일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투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건전한 투자는 우리 가족의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고 안전을 높이거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등을 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투자동기와 자세이다. 우리가 정당한 목적없이 돈만을 축적하려는 투자는 만몬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 2. 증권투자는 비성경적인가?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저축에 대하여는 별 거부감이 없는 반면, 증권투자에 대하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저축이 바람직하다면 증권투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증권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를 살펴 보고 이에 대하여 논평하여 보고자 한다.

### 1) 저축은 미덕이지만 증권투자는 악덕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축이 미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왔다. 요사이의 저축뿐만 아니라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저축이 미덕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이 일치하고 있다. 우리가 저축한 자금은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이용되어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일조를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저축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서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저축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융시장에서의 조달이라고 하고, 주식·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저축을 하거나 증권에 투자를 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온다.

그런데 금융시장(저축)에서의 자금조달은 간접적인 반면, 자본시장(증권)에서의 자금조달은 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기업측면에서 보면 타인자본인 부채가 되지만, 자본시장의 주류를 이루는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기업의 자기자본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실화에도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된 저축자금을 차입하기 보다는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 2) 증권시장은 투기적 놀음판이므로 비성경적이다?

자본시장에서 주식등 증권의 가격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을 거듭한다. 그러니 가격의 등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하루에도 수십 또는 수백 만원씩 한편에서는 이득을 보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손실을 보곤한다. 주위에서는 증권투자를 했다가 집을 날렸다는 등, 깡통계좌가 되었다는 등 폐가망신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증권투자는 도박과 같으며, 증권시장은 놀음판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시장은 국민경제에서 희소한 자원을 각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즉 동일한 자원을 투입하여 좀 더 많은 자원을 생산하여 내는 곳 (즉 이윤이 높은 기업)으로 그렇지 못한 곳 (즉 이윤이 낮은 기업)에 있는 자금을 이동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도 가장 많은 재화의 생산을 가져 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경쟁을 통하여 성취된다. 즉 경쟁이 공정하고 치열할수록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 지는 것이다. 위와 같은 폐해는 지나친 단기적인 이익에의 집착과 과도한 투자에서 비롯된 것이지 증권투자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 3) 증권투자는 불로소득을 양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한다?

증권시장에서는 몇달, 또는 며칠 사이에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소득은 불로소득이고 이에 따라 많은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 주기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투자이론에서는 위험과 이에 대한 수익은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각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위험을 설정하고 그 수준에 합당한 투자를 한 후 이에 상응하는 투자수익을 올린다. 실제로 기업에서의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도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한 후 이에 따른 수익을 얻는 것이며, 이러한 혁신이 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기업에서의 혁신위험이 증권에 반영되게 되는데,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에 대한 위험과 이에 따른 정당한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식투자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축은 일반적으로 주식에 비하여 위험이 낮은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자가 낮을 뿐, 이 또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4) 부동산투기나 증권투자는 동일하다?

부동산투자를 증권투자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증권가격의 상승은 당해 증권을 발행한 효율성이 높은 기업에게 가용자원의 양을 늘려 주는 반면, 부동산투자는 기업의 투자를 돕기는 커녕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오히려 투자를 저해한다. 그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은 부동산이 없는 가난한 계층에게 가장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미친다. 증권투자는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사이에 이익과 손실의 배분이 이루어 지는 반면, 부동산 투자는 이 게임에 전혀 참여할 의사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허약한 계층에 손실을 전가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 한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는 경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신중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를 할 경우 수익이 높아 보이더라도 유흥산업이나 반기독교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삼가하여야 할 것은 부동산투기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업등은 가난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 (레 25:37, 잠 28:8).

투자 자체가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투자는 우리의 영적 삶의 기초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 증권시장에는 탐욕의 우상이 횡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영적 무장이 없이 증권투자에 참여한다면 쉽사리 이 탐욕의 우상에 빠져들기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투자를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소개한다.

- ① 투자목적을 분명히 하라
- ② 투기를 피하라.
- ③ 투자는 여유돈으로 하라
- ④ 투자시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투자하지 마라.
- 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당신의 간증을 생각하라.
- ⑥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알아야 한다.
- ⑦ 장래를 바라보고 분산투자하라.

#### 3. 돈없어도 부요하여 질 수 있는가?

투자할 때나 소비할 때 우리가 명심하여야 하는 것은 재물에는 평강이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부요란 물질적 의미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질에 대하여는 지족(知足)하는 마음을 가져야 경건에 이익이 있는 것이다 (딤후 6:6). 가장 중요한 부요: 우리 마음 속의 평강이다 (요 14:27).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물질적 처지에 무관하다. 사도 바울은 이 부요를 말씀하신 바 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2-13). 이것이 진정한 부요이다. 재물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편안만을 주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이생에서 뿐만 아니라 저생까지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 샤론 레흐트

조성표

최근 하와이 일본인 4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어릴 적에 만난 두 아빠의 재물에 대한 생각을 대비시켜 설명한 책으로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다.

일류대학을 나와 박사학위까지 받고 교육계에 종사하였지만 평생 조들렸던 자신의 아버지(저자는 그를 가난한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돈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은 피해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들을 가르쳤다. 반면,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사업에서 자수성가한 친구의 아버지(부자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야 한다. 위험을 피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여 너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라”라고 가르쳤다.

무엇보다도 두 아버지는 재물관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가난한 아버지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가난한 아버지는 “돈이 부족한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자는 두 분의 강력한 아버지의 가르침 사이에서 스스로 더 많이 생각하고 양쪽을 비교한 후에, 부자 아버지의 교훈을 따랐다. 그는 사십 세에 노숙자 생활로 전락하는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4년 뒤 마흔 넷에 백만장자로 일어섰고, 마흔 일곱 살이 되던 94년에 “진정한 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었다. 이때 기요사키부부는 “다시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느끼고 이제는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는 “난 직업은 없지만, 취미는 있다. 바로 돈 버는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강조하였다.

이 책에서는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돈을 감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돈을 만들기(make money)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부자에게서 배우는 각종 교훈과 돈관리 방법, 투자가이드를 세 권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2·3권의 내용은 1권의 내용을 중복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1권을 읽지 않고도 2·3권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돈버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 종래의 책들에 비하여,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유의하면서 읽어야 한다.

이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생활은 일을 하지 않는 삶이다. 그는 자신이 47세에 일생에 쓸 만큼의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일 자체로 의미가 있다. 또한 돈을 번다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돈을 벌면 영혼까지 평안하여 질 것으로 생각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철학을 닮아 있다 (눅 12:16-21).

저자가 2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봉급쟁이나 전문직(E, S분원)보다 사업가나 투자가(B, I분원)가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적성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수입을 얻는 방식이 다른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투자가가 이상적이라면, 부동산투기자나 증권회사 객장에서 소일하는 증권투자자들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E, S, B, I분원에 속하는 직업 모두가 의미가 있다.

이 책은 투자 및 재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에 근거하였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집중투자를 권유하고 있는데, 집중투자는 운이 좋으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깡통을 차게 되는 지극히 위험한 투자행태이다. 저자도 초기에는 노숙자로 까지 전락한 실패를 경험하였다.

다만 이 책이 공헌하는 바는 이제까지 돈을 좋아하면서도 경원시 하였던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한목”을 잡고자 증권시장에 무작정 뛰어 들었던 “묻지마 투자”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제 돈에 대하여 바로 알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돈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요사키의 철학은 “개처럼 벌여 정승처럼 쓰라”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돈 문제는 돈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기요사키가 제시한 바와 같이 돈을 많이 벌음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대하여는 “지족(知足)하는 마음”가져야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딤후 6:6)